

갤러리에 봄이 활짝 핀어요

상록전시관 4월11일까지 ‘춘삼월’전
어린이갤러리 ‘12띠 동물이야기’전
광주롯데갤러리 ‘매향-휘파람새’전

남도 들녘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꽃소식이 지역 화랑가를 풍성하게 물들인다. 봄을 맞아 미술관, 화랑가가 봄나들이 관람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다양한 꽃 그림을 선사하고,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12종의 띠 동물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상록전시관은 오는 4월11일까지 봄 소식을 전해주는 ‘춘삼월’전을 연다.

특히 옛 전남도지사 공관에 자리 잡고 있는 상록전시관 주변은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그림자로 가득 차 있다.

변은 광주에서 가장 화려한 벚꽃 군락지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산책과 작품 감상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욱, 김주연, 박철환, 박태후, 서기문, 조진호, 홍지윤씨 등이 참여해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한국화가 흥지윤씨는 커다란 화폭 위에 자유분방한 붓놀림으로 화사한 꽃들을 가득 그려 넣은 작품을 선사한다. 오방색의 현란한 색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포착했다.

‘참새’ 작가 박태후씨는 절제된 화폭이 주는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단아한 ‘자연 속으로’ 연작을 내놨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 담긴 무한한 여백에서는 봄 기운을 물씬 느낄

또 ‘꽃의 화가’ 조진호씨는 모란·복련·매화·동백 등 친근한 우리 꽃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서기문씨는 동백 꽃잎 위에서 사람들이 농악을 펼치는 환상적인 장면을 화폭에 담

았다. 문의 062-613-5390.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가 오는 5월23일까지 선보이는 '12띠 동물이야기'전은 '꿈을 꾸는 어린이'를 위한 전시회이다. 고근호, 김상연, 김숙빈, 박소빈, 위재환, 이동환, 이

정기, 이조흡, 임병중, 전현숙, 조광석, 조대원씨 등이 참여해 땅 동물을 모델로 만든 평면, 입체, 설치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613-7142.

광주롯데갤러리도 오는 10일까지 금방이라도 매화 향기가 퍼질 것만 같은 매화 그림만을 모은 ‘매향(梅香) – 휴파람 새 날아들다’전을 연다.

조진호 작 ‘향’

A vibrant, abstract illustration featuring large, stylized Japanese characters (Kanji) in various colors. The characters include '人' (person), '月' (moon), '水' (water), and '火' (fire).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intricate patterns, including yellow and green fan-like shapes, red and white floral motifs, and blue and white cloud-like designs. The overall style is a dense, colorful collage.

A dark blue background with numerous small white dots representing stars, and a larger, more prominent white dot on the left side representing a planet or star.

한희원 작 ‘마음속의 눈물 – 매화’

전시에는 오경규, 이정래, 황순칠, 한희원, 서병옥, 채종기, 김순희, 조수진씨등이 참여해 회화 설치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오경규씨는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古佛梅)를 화폭에 담았고, 한희원씨는 강렬한 파란 빛으로 하늘을 표현한 뒤 하늘거리며 휘날리는 매화 꽃잎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작품을 출품한다. 문의 062-221-1808.

이 밖에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3일 오후 7시 이 미술관 본관 1층 로비에서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아름다운 선율도 만끽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임채은, 차연우씨의 가야금 병창, 테너 김백호씨와 소프라노 이환희씨의 성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가수 공성길씨가 ‘편지’(어니언스), ‘하얀나비’(김정

‘꿈의대화’(이법용) 등 친숙한 가요를 들려준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미술관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밤 9시까지 전시작품 감상을 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반대호 작 '자연 속으로'

